

실화

운명의 메아리



안명국

1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환자상태는 매우 위급합니다. 우리는 가족측에 수술립회를 서줄것을...》

송수화기에서 울려나오는 **김일성** 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 기술부원장의 목소리는 참으로 절절하게 울렸다.

《음...》

박호범은 심장이 비틀리는듯 한 진통에 저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냈다.

얼굴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수술은 언제 할 예정입니까?》

입술을 떨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쌍둥이형제의 맏이인 강혁이가 뜻밖의 급병으로 병원으로 후송되었던것이다.

호범이 이 소식을 받은것은 정오가 지날무렵이었다.

《가족측에서 도착하면 수술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호범은 드디어 결심을 내린듯 입을 열었다.

《알겠습니다. 제 곧 떠나도록 하지요.》

통화를 끝내고나서 화락하니 젖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눈앞에는 모진 진통에 시달리고있을 강혁이의 얼

굴이 얼른거렸다.

그와 엇갈려 형의 생사를 두고 근심에 잠겨있을 동생 성혁이의 모습도 눈에 비껴들었다.

안해에게 이 소식을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손전화기를 잡았으나 머리를 저으며 출장중에 있는 초급당비서(당시)를 찾았다.

《제 밤중으로 돌아서겠으니 지배인동문 당장 떠나도록 하십시오.》

호범의 말을 긴장해서 듣고나서 조중욱이 하는말이었다.

《고맙습니다. 제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호범은 아들에게로 떠나지 못했다. 아니, 떠날수가 없었다.

2

《지배인동지! 판통입니다.》

물먹은 버럭이며 감람을 탄차에 담던 채란중대장 김경일이 삼을 쥐어뿌리며 웨치다싶이 소리쳤다.

복구작업에 동원된 탄부들이 경일의 곁으로 모여들어 앞을 살폈다.

안전모처럼 등실한 구멍으로 안전등빛이 쭉 뻗어나갔다.

신심을 가진 탄부들이 버럭무지를 량쪽으로 밀어내고 앞으로 나갔다.

미처 빠지지 못한 물이 무릎을 쳤다.

《오성렬동무!... 청년동맹위원장!》

탄부들을 찾는 호범의 목소리가 막장을 울렸다.

《형님.》

《영빈이-》

목메여 찾는 목소리는 막장벽에 부딪치며 메아리를 일으켰다.

이들은 과연 어디에 있단 말인가?

새로운 불안이 호범의 가슴을 압박했다.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오전 10시였다.

그러니 물동이 터진 때로부터 15시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셈이었다.

어제 저녁이었다.

호범이 평양으로 떠날 준비를 갖추고 사무실을 나서려는데 손전화기에서 호출음이 울렸다.

이어 1갱장 최운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리었다.

《지배인동지! 막장에서 물동이 터졌습니다.》

어지간히 당황한 최운의 목소리에 호범의 어성은 높아졌다.

《뭐라구?!》

호범은 그길로 사무실을 나섰다.

대한추위의 맵짠 바람에 숨길이 헉- 막혔다.

《어떻게 된 일이지?》

갱입구에 당도하기 바쁘게 갱장에게 물었다.

《아직은 저도 잘...》

《막장에 누가 있소?》

채탄중대장 림현철, 탄광청년동맹 초급위원회 위원장(당시) 안광혁, 주종명...

최운은 탄부들의 이름을 한사람한사람 꼽았다.

(그러니 8명의 탄부들이...)

더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들어가요.》

최운의 팔을 잡아끌며 호범이 말했다.

《지배인동무, 조심하오.》

귀에 익은 목소리에 뒤를 돌아보았다.

출장지에서 방금 돌아온 길인듯 초급당비서 조중욱이 호범의 뒤에 바짝 붙어서며 말했다.

《왔군요.》

부지중 반가운 생각이 들어 별썬 웃음을 지어보였다.

《좀 늦었습니다.》

긴말을 좋아하지 않는 조중욱은 지배인의 팔을 끼고 앞서걸었다.

막장은 예상했던것보다는 피해가 적은것 같았다. 그러나 감탕에 반나마 묻혀버린 압축기며 그옆에 루적된 버럭더미를 보는 순간 호범은 엄청난 피해 구간이 앞에 있다는것을 의식했다.

《책임기사동무, 공정도!》

호범은 입술을 깨물며 손을 내밀었다.

압축기운전공들이 사용하던 긴의자의 감탕을 쓸어내고 공정도를 펼쳤다.

안전등을 손에 쥐고 공정도의 선과 점들을 더듬었다.

그러니 물동이 터지면서 무른 암석층이 무너져내린것이 분명했다.

여기는 1 350m구간이다.

새 탄발을 마련하기 위한 굴진전투를 벌리던 두해전 암질이 좋은 여기에 압축기장을 전개하자고 책임기사와 토론하던 일이 생각났다.

암반이 하도 굳어 굴진중대도 여기를 힘들게 개척했었다.

이런 곳에서 물동이 터진다는것은 거의나 상식밖의 일이었다.

《책임기사동무! 동무생각엔 물주머니가 어디서 터졌을것 같소?》

리태근의 등실한 얼굴에 눈길을 던지며 물었다.

《여긴 물주머니의 징후가 없었습니다. 막장에 흔한 석수마저 내리지 않아서 물을 길어다 물통에 채우며 착암을 하던 곳이 여기가 아닙니까.》

현장에서 직접 갱건설을 지휘한 최운이 책임기사를 대신하여 대답했다.

(그때, 굴진공들이 건식착암을 하다가 나에게 걸려들어 된욕을 치른 곳도 바로 이 구간이었지.)

당시 굴진중대장으로 사업하던 주종명이 후날 자기는 그때처럼 땀을 뺐은적이 없었다고 토설하던 일도 생각났다.

그 주종명이 지금 저 막장속에 있다.

심신을 괴롭히는 잡념을 털어버리며 공정도에 다시 눈길을 모았다.

필요한 조직사업을 하고났을 때 조중욱이 호범을 조용한 곳으로 이끌었다.

《지배인동무, 이제라도 병원으로 떠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중욱은 여기 일은 자기에게 맡기고 어서 떠나라고 조심히 재촉했다.

그제서야 지금껏 잊고있던 아들에 대한 생각이 또 머리를 쳐들었다.

《병원에서 방금전에도 전화가 왔었습니다.》

조중욱의 목소리는 나직했으나 강경한 어조가 깔려있었다.

호범은 머리를 저었다.

《비서동무, 비서동무까지 이러면 전 어찌라는 겁니까.》

가슴이 타들고 숨이 막혀 말이 나가지 않았다.

《병원에서는 지금 환자의 가족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고싶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탄광의 지배인인 내가 이렇게 된 막장을 놓고 어떻게 떠날수 있단 말인가.

노여운 생각이 들었다.

《비서동무! 제발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말아주오.》

왈칵 쏟아져나오는 눈물을 삼키며 압축기장쪽으로 걸어갔다.

(강혁아, 이 아버지를 리해해다오. 그래도 네결엔 너를 위해 밤을 지새우는 의사선생님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 탄부들은 지금...)

3

이곳은 사질점판암지대로서 지질학적으로 보아도 도저히 불량이 성립될수 없는 곳이다. 하다면 물주머니가 터지면서 갱이 무너진 곳은 굴진막장과 채탄장이 갈라지는 분기점일수 있다. 거기까지 가자면 이제부터 250m이상을 복구해야 한다. 거기까지 며칠이면 가낼수 있을까?

중대장이상급 탄광초급일군들의 긴급회의회를 하면서 호범은 이런 생각에 잠겨있었다.

회의회의 초점은 막장에 갇힌 사람들의 생사문제와 함께 물동이 어디서 터졌는가 하는 원인을 밝히는데로 집중되었다.

《책임기사동무, 동무생각을 한번 말해보오.》

호범은 머리를 짓수긋하고 앉아 바닥만 허비고있는 리태근에게로 눈길을 돌리며 말했다.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저도 지배인동지와 같은 생각입니다.》

막장경험이 풍부한 초급일군들의 생각도 책임기사와 다를바 없었다.

《동무들의 생각이 그렇다면 좋소. 이렇게 합시다. 책임기사동무 회안탐사대에 우리 탄광의 탐사자료를 시급히 의뢰하시오. 그리고 공무중대장동무 2명 압축기를 해체하여 여기에 설치해야겠소. 막장에 있는 동무들에게 다른 지원을 줄수 없는 조건에서 우선 압축공기라도 보내주어야 하오. 굴진중대와 채탄중대동무들은 각기 자기들이 맡은 작업과제를 수행해야겠소.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구조전투에서 중요한것은 전투에 동원된 모든 동무들이 신심을 잃지 않도록 하는것이요. 이만합시다.》

분담받은 초소로 달려가는 초급일군들을 보면서

호범은 구조전투의 치렬성을 예상해보았다.

그것은 아직 누구도 체험해보지 못한 어렵고도 간고한 일일것이다.

자연과의 투쟁을 하는 사람들은 이번과 같은 뜻밖의 일에 부닥칠수 있었다. 그때에는 누구를 불문하고 막장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신심을 잃지 않는것이 중요했다. 굴속에 갇힌 사람들은 그들대로 지금 동지들이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한 긴장한 전투를 벌리고있다는 믿음이 필요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동지들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에 뿌리를 박은 힘이였고 의지였다.

《비서동무, 난 어쩐지 두려운 생각이 드는군요.》

조중욱이 곁에 자리를 잡고 앉자 호범은 상념에서 깨어났다.

《하, 이거 지배인동무의 마음이 흔들리면 야단인데.》

조중욱은 난색을 지으며 호범의 손을 꼭 잡아쥐었다.

《글쎄 내가 이러면 안된다는건 알지만 나도 인간인 까닭에 그런 생각이 드는걸 어찌겠습니까.》

호범은 막장에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의 모습이 떠올라 머리를 흔들었다.

《이게 뭐야. 안전모가 아니야?》

가까이에서 울리는 목소리에 호범은 머리를 돌렸다.

《어디...》

그러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며 호범은 그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떠박질리운 사람처럼 황급히 그쪽으로 달려갔다.

《지배인동지!》

물먹은 버럭이며 감탕이 게발린 안전모를 손에 쥔 채 입술을 떠는 김경일의 목소리가 가슴을 찔었다.

물도랑에 무릎을 꿇고앉은 호범은 안전모에 묻은 돌가루를 조심히 씻었다.

수지안전모의 빨간색이 드러났다.

《누구거야?》

탄부들이 술렁거렸다.

눈앞이 아찔해져 몸을 비칭거렸다.

누군가가 부축해주어서야 간신히 몸을 유지했다.

돌아보았다. 당비서였다.

《지배인동무! 사람들이 지배인동물 지켜보고있습니다.》

신심을 잃고 여기저기에 주저앉은 탄부들의 맥이

플린 눈빛을 바라보느라니 마음이 섬찍했다.

《동무들, 동무들은 지금 어디 있소.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들을수 있게 <우리 여기 있소.> 하고 소리라도 좀 쳐주오.》

입술을 짓씹으며 애타는 마음으로 소리없이 그들을 불러보았다.

그러나 활기가 사라진 막장은 적막한 한숨소리만이 어설피게 떠돌뿐 호범이 바라는 화답소리는 어디서도 들려오지 않았다.

입술을 사려물며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갱입구쪽에서 여러개의 안전등빛이 막장벽을 활으며 이리로 오는것이 흐려진 망막에 어롱어롱 비껴들었다.

《수고하오, 지배인동무!》

거쿨진 사람의 웅글은 목소리가 허공중에서처럼 들려왔다.

이 사람은 누군데 날보고 수고한다는 말을 하는가...

《지배인동무, 이번 일때문에 오신 도당부부장 동지요.》

군당책임비서(당시)가 귀뜸해서야 정신을 차렸다.

《허, 이거 막장공기가 시원칠 않다.》

도당일군의 호방한 웃음소리가 막장벽을 울렸다.

호범은 눈물을 짓씹으며 방금전의 일을 두서없이 이야기했다.

《그래서 맥들을 놓고있다. 암벽과 싸우는 탄부들의 심장이 그렇게 작은줄은 몰랐는걸... 동무들! 우린 설사 8개의 안전모가 다 나진다고 해도 절대로 신심을 잃어선 안되오. 지금 당에서는 막장에 있는 탄부들을 모두 구원했다는 보고를 기다리고있소. 우린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보고만을 올려야 한단 말이요. 알겠소?》

구조전투에 동원된 사람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 쥐고 고무해주며 도당일군이 하는 말이었다.

《자, 엎어진김에 쉬어간다는데 좀 늦은감은 있지만 우리 야전식으로 저녁식사를 하고 다시 돌격해보지요.》

도당일군이 가지고온 지원물자를 이고 들어온 수련이와 향림이가 그들에게 팍밥을 나누어주며 소탈하게 웃었다.

《지배인동무도 하나 들어보오. 이게 보긴 그래도 별맛이요. 내가 늘 출장을 다니다보니 우리 집사람이 팍밥 하나만은 잘 만들거던. 자, 어서...》

호범은 마지못해 받아들였다.

《정말 먼목이 없습니다.》

도당일군이 웃었다.

《지배인동무! 자연과의 투쟁인데 무슨 일인데 없겠소. 나도 체대되어 탄광에서 일하면서 보니 이럴 때 제일 중요하것은 신심이더구만.》

《그럼 탄부출신입니까?》

경일이 입에 떠넣었던 밥을 성급하게 넘기며 물었다.

《왜? 믿어지지 않소. 내 이래봐도 한때는 체탄 중대장을 하면서 신문에도 여러번 난 사람이요. 자, 이젠 배도 불썩해졌겠다 우리 힘을 내서 다시 한번 돌진해보지요.》

4

《2중대장, 이젠 교대하자구.》

앞장에 붙어서서 복구굴진을 하고있는 김경일의 어깨를 꺾꺾 찌르며 체탄1중대장 김명호가 말했다.

《이거 왜 이래.》

경일이 짜증을 부렸다.

누가 교대하자는 말을 비칠라고만 해도 성을 내는 그다.

《제발 나만은 건드리지 말아. 저 막장엔 우리 형님이 있단 말이야.》

《2중대장, 저속에 동무의 형님만 있다고 생각해? 저기엔 우리 중대원들도 있단 말이야. 그들은 우리의 형제들이고 동지들이야. 알겠어?》

그 소리에는 대꾸를 못하고 눈을 껌벅거렸다.

듣고보니 형도 바로 명호네 중대 소대장이었던 것이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나만은 건드리지 말라니까.》

《이보게, 너무 고집부리지 말라구. 자네가 숨을 돌린 다음엔 내 교대해주시.》

《젠장...》

어쩔수없이 경일은 자리를 내주었다.

《응당 그랬어야지.》

인제가 끝나자 명호는 가까이에서 버럭을 담고있는 호범을 향해 안전등을 흔들어보였다.

호범은 경일의 손을 잡아끌었다.

경일의 손끝이 다 모지라지고 투실투실해진것이 촉감에 마쳐왔다.

《윈, 사람도...》

조용히 나무랐다.

《지배인동지! 무슨 일이 있습니까?》

자기를 교대시킨 사람이 다름아닌 지배인임을 알

아차린 경일이 물었다.

《경일동무, 내 방금 소식을 받았는데 동무 아주머니가 간밤에 해산을 했다는만. 그런데 말이야, 글썄 동무 처가 세쌍둥이를 보았다질 않소. 이제 보니 동무재간도 여간 아니더구만.》

경일의 어깨를 치며 호범이 웃었다.

《지배인동지, 거짓말도 아귀를 맞추었습니다. 아니, 임신도 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그것도 단번에 세쌍둥이를 낳는다고 그러니까. 글썄 지배인동지 아주머니라면 몰라도...》

《예끼, 이 친구 말하는걸 좀 보지.》

호범은 버럭이 잔뜩 계발린 그의 영치를 한대 같기며 꺾꺾 웃었다.

《아, 그야 죄다 사실이 아닙니까. 우리 탄광적으로 단번에 두벌농사를 지은 집이야 지배인동지네 집밖에 더 있습니까.》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울렸다.

지배인부러가 그렇게 침울해가지고 어떻게 구조전투를 지휘할수 있겠느냐는 도당일군의 충고를 받고 한마디 한것인데 그것이 막장의 분위기를 대번에 일신시킬줄 호범은 생각지도 못했다.

《내 지금껏 경일동무가 우리 쌍둥이를 그렇게 부러워하는줄은 정말 몰랐는걸. 그럼 내 어떻게 하면 쌍둥이를 볼수 있는지 그 경험을 말해줄가.》

《정말입니까?》

경일이 눈을 깜빡이며 대꾸했다.

《정말 아니구. 이제 집에 들어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라구.》

《에이, 모르겠습니다.》

《아무렴 이 지배인이 거짓말을 할가.》

《믿어지지 않는데요.》

《어째서...》

《언젠가 지배인동진 광혁동무에게 장가를 간지가 언젠데 아직도 자식을 보지 못하는가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한적이...》

이렇게 말하던 경일이 갑자기 손으로 입을 막았다. 자기가 뜻밖의 실언을 했음을 느낀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안광혁, 장가를 든지 몇해가 지나도록 자식을 보지 못해 마음고생이 많던 청년이다.

그러던 안광혁의 안해 차인순에게 태기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탄부들은 얼마나 기뻐했든가.

차인순은 탄광적으로 이름난 혁신자였다.

이번 피해로 해체중에 있는 1호 압축기도 그가 자기의 살붙이처럼 다루던 설비였다.

광혁이와 가정을 이루고서도 압축기장을 떠나지 않는 녀인... 그런 그에게 이제 산전산후휴가를 받을 때가 되지 않았는가고 넌지시 물으면 얼굴이 구운 가재빛으로 되어 몸둘바를 몰라하던 녀인이다름아닌 차인순이었다.

《지배인동지, 우리 처가 임신했습니다. 배가 별스레 나오는게 혹시 세쌍둥이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뻘 저한테 배우러 오십시오.》

코노래를 흥얼거리며 착암기의 공기변을 넣던 광혁이의 모습도 방금전의 일처럼 눈에 선했다.

(온 탄광의 관심속에 해산의 날을 기다리는 광혁이의 새생명에게 유복자라는 상처를 남겨선 안돼...)

호범은 머리를 저었다.

막장에 갇힌 귀중한 한사람한사람의 모습들이 막막에 비껴들었다.

발파공 오성렬이만 봐도 그랬다.

아침이었다.

비록 불편한 몸이지만 자기도 동지들을 구원하는 전투에 참가하겠다고 막장으로 들어오는 발파공 리호철을 만류하는 최운에게로 걸어가던 호범은 그가 손에 들고있는 솜신발에 눈길이 미쳤다.

《호철동무, 그건 웬 신발이요?》

지배인의 물음에 호철은 먼구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저... 이건...》

《어서 말하오.》

《사실 이건 오성렬동무의 신발입니다. 그가 막장에서 나오면 주려고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가늠이 가지 않았다.

리호철은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사연인즉 이러했다.

오성렬이네가 막장에 갇히는 바로 그날 저녁이었다.

남포약을 타가지고 오던 오성렬이 문득 호철에게 신고있는 장화를 벗으라고 말했다.

《왜 그러나? 내 장화가 어떻게 됐나?》

호철이 의아해서 물었다.

《글썄 벗으라니까.》

허리를 굽혀 호철의 장화를 벗긴 성렬은 자기의 솜신을 벗어 그의 앞에 놓았다.

《이건 뭔가?》

《신고가라구. 오늘은 어제보다 날씨가 더 뽀뽀. 그런데 2갱까지 장화를 신고갔다 동상이라도 입으면 어쩔려구. 더구나 그리로 가는 길이 몹시 험해 미끄러질수 있어. 그러다 퇴판에 손상이

가면...》

《원, 사람도... 내 걱정은 말고 제 건강이나 돌보라구.》

성의는 고마웠으나 호철은 오성렬의 신발을 슬며시 떨어버렸다.

《그러지 말고 내 말 듣게. 1갱이야 었디면 코담을테가 아닌가. 오늘 우리 청이 엄마가 사다준 신발이야. 그런데 난 아무리 날이 뻘짜도 운동화를 신어야 발이 편안하거던...》

억지다짐으로 신발을 바꾸어신은 오성렬이 남포 약통을 지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성렬의 인간됨이 엿보이는 일화여서 모두가 눈시울을 적시며 들었다.

갱입구쪽에서 웅성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호범은 안전등으로 그쪽을 비쳤다.

낮모를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고있었다.

《웬사람들이요?》

호범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물었다.

《지배인동지, 련합기업소에서 사람들이 왔습시다.》

탐사자료때문에 회안탐사대에 갔던 책임기사의 목소리였다.

《탄광련합에서?》

《그리구 이웃탄광들에서도 수많은 지원물자와 함께 자기네 사람들을 보냈습시다.》

《수고합니다, 지배인동무!》

이미전부터 면식이 있는 이웃탄광 지배인들이 호범에게 인사를 했다.

《우리가 일을 쓰게 못하다보니 동무네한테까지 폐를 끼치게 됐군요.》

호범은 그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원, 무슨 말을...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지배인동문 외면하겠습니까?》

이웃탄광 지배인이 이런 말을 해서 모두가 소리내어 웃었다.

남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며 생사를 함께 하는 고마운 사람들...

이런 인간들을 누가 키웠던가?

우리 당이 품들여 키웠다는 감격에 목이 짹 메였다.

그래, 우리의 사회주의제도가 아니고서야 어디 가서 이렇듯 뜨거운 심장을 지닌 인간들을 찾아볼 수 있으랴 하는 걱정으로 가슴이 그들떡해졌다.

호범은 그들 매 사람의 손을 더듬어잡았다.

그러고나서 당비서를 찾았다.

《비서동진 평양에 갔습니다.》

《평양에?!...》

《아직 모르고있습니까?》

책임기사가 물었다.

《뭘 말이요?》

호범이 되물었다.

《강혁이가 지금...》

《그럼 우리 강혁이때문에?!》

지금껏 잊고있던 아니, 애써 잊으려 했던 아들의 얼굴이 다시금 눈에 비껴들었다.

막장에서 생긴 뜻밖의 일만 아니라면 지금쯤 아들의 침상이나 수술장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탄부들의 생사가 시간을 다투고있는 때 다름아닌 당비서가 지배인아들의 수술립회를 서러가다니...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소?》

목소리는 자연 격해졌다.

막장에 갇혀있는 탄부들이 이 소식을 알면 자기 자식을 먼저 생각한 이 지배인을 두고 뭐라고 할 것인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쳤다.

《도당부부장동지가 차에 당비서동지를 태워 떠나보냈습시다.》

책임기사의 말에 흠칫 몸을 떨었다.

또다시 눈물이 앞을 가리웠다.

손수건으로 눈굽을 훔친 호범은 감탕이 묻은 작업복을 입고 탄부들의 앞장에서 구조전투를 지휘하고있는 도당일군을 눈주어 바라보았다.

그래, 당에선 지금 우리의 보고를 기다리고있다. 그 보고를 하루빨리 올리자면 우린 시간을 쪼개며 일을 해야 한다.

책임기사를 데리고 조용히 갱밖으로 나왔다.

배나무골지구의 지질상태와 탐사자료가 들어있는 기억기를 컴퓨터에 설치한 호범은 화상자료에 오래도록 눈길을 박고있었다.

《그러니 1갱쪽으로는 그 어떤 물줄기도 지나가지 않았다는거겠소?》

고개를 돌리며 책임기사에게 물었다.

《그렇습니다. 탐사대에서는 이미 폐갱한 범사갱에서 나온 물이 우리 막장으로 흘러들지 않았는가 우려하고있습니다.》

《범사갱, 범사갱이라...》

손가락으로 책상을 다독이며 혼자소리로 뇌이던 그는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가보지요.》

호범이 안전등을 집어들며 말했다.
 《어디로 말입니까?》
 어리둥절해서 따라서며 태근이 물었다.
 《범사갱이지 어딘 어디겠소.》
 검푸른 하늘에서는 추위에 떠는 조각별들이 희미한 빛을 뿌리고있었다.
 《조심하십시오.》
 얼어붙은 눈길을 성급히 건느라 몸을 휘청이는 호범을 부축하며 태근이 주의를 주었다.
 《내 걱정은 말고 어서 따라서기나 하오.》
 산중턱에 자리잡은 범사갱의 젖은 버력을 밟으며 막장으로 들어갔다.
 동발버섯냄새가 물씬 풍겨왔다.
 꺾어진 동발잔해들을 헤치고 들어가니 심한 봉락구간이 나타났다.
 봉락구간밑에서 물흐르는 소리가 졸졸거렸다.
 여기도 아닌가? 하다면 어디서 침습한 물이 막장을 쳤단 말인가?
 《지배인동지! 여기 통기갱이 있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던 책임기사가 소리쳤다.
 되돌아서 뛰어갔다.
 수직으로 난 통기갱은 물기가 번들거려 올리불기가 조런치 않았다.
 태근이 밑에서 받쳐주어야야 간신히 올랐다.
 통기갱을 따라 얼마쯤 기여가니 석수 떨어지는 소리가 울려왔다.
 안전등으로 아래쪽을 비쳤다.
 퍼런 물결이 늘실대고있었다.
 버럭덩이를 던졌다.
 침범!
 깊이를 가늠할수 없는 물소리.
 그러니 여기에 차있는 물이 암석층에 슴배어들면서...

《책임기사동무, 저 봉락구간을 열고 물을 완전히 뽑아야겠소.》
 원인을 찾아냈으나 마음은 개운치 않았다.
 머리속에는 막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만 줄곧 맴돌고있었다.

5

《지배인동지, 지배인동지, 어디 있습니까?》
 창고에 나갔던 2갱장 정광일이 어깨에서 마대통 구리를 떨구며 소리쳤다.
 2갱에서 해체해온 압축기를 설치하고있던 호범이 허리를 폈다.

《여보, 그만 소리치오. 그러다 귀청 떨어지겠소.》
 《아, 여기 있었군요.》
 《무슨 일인데 불난 집 아낙네처럼 소리 지르는 거요?》
 손에 든 나사들개를 공무반장에게 넘겨주며 호범이 물었다.
 《이 어머니가 지배인동지를 꼭 만나게 해달라고 조르기에...》
 한 녀인을 가리키며 2갱장이 말했다.
 호범을 보자 녀인은 보자기를 씌운 버치를 내려 놓고나서 인사를 했다.
 어망결에 인사를 받고나서 물었다.
 《저를 만나자고 했습니까?》
 《예, 제 지배인동지를 만나 사죄도 하고 부락할것도 있어서 바쁘신줄 알면서도 체면을 불구하고 왔습니다.》
 《저에게 사죄라니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제 이제 다 말하지요. 전 김성호라는 사람과 한지봉을 쓰고사는 로친입니다.》
 《김성호요?》
 《아, 지금 굴속에 갇혀있다는 그 사람 말이웨다.》
 《그래서요?...》
 《내 나살이나 먹은게 망녕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지 지난해 봄에 글썽 그 사람과 다투질 않았겠소. 별치 않은 일로 말이웨다. 그런데 성호 그 사람이 막장에 갇혀 며칠째 소식을 모른다질 않겠소. 그 말을 들으니 그때 일이 자꾸 생각나는게... 그때 내 변변치는 않지만 힘들을 내서 그 사람을 빨리 구원해달라고 두루 준비해가지고왔습니다. 성호 그 사람에게 마음속으로 사죄도 하는겸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녀인의 주름진 손을 잡으며 호범이 말했다.
 《성호동무가 막장에서 나오면 제 어머니의 말을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쨌다. 그럼 내 들어왔던김에 버럭이라도 몇삽 뜨고가겠수다.》
 지원물자를 넘겨주고난 녀인은 팔소매를 걷어붙이더니 동발목에 세워놓은 삽을 집어들었다.
 《어머니, 이러지 마십시오.》
 호범이 서둘러 만류했다.
 《날 막지 말아주시우. 나도 한창나이때는 석탄한차를 휘딱하니 퍼담곤 했수다. 그런 내가 막장에까지 들어왔다가 버럭 한삽도 뜨지 않고 나가면 이

마음이 개운하겠소. 후날 그 사람과 마주앉아도 속에는 죄스러움이 가득할거웨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성호동무가 막장에서 나오면 제 성호동무를 앞세우고 어머니의 집으로 찾아가겠습니다. 그래도 일없겠지요?》

《일이야 무슨 일이 있겠소. 난 절대찬성이웨다.》

다투었던 지난날을 아프게 회억하며 그들을 구원하는 전투에 자기의 적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어하는 녀인을 보느라니 가슴이 후터워졌다.

이런 사람들이 어찌 이 녀인 한사람뿐이라고 말할수 있으랴.

부모없는 아이들을 말아 키우면서도 날마다 지원물자를 준비해가지고 갱으로 나오군 하는 2갱 채탄공 안정철의 안해며 이름모를 탄광마을녀인들이 보내오는 지원물자들마다에 이런 마음들이 깃들어 있었다.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호범은 한시라도 빨리 막장을 열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조급해났다.

그러나 봉락구간을 열어나가야 하는 긴장한 전투는 날에 날을 이어 계속되고있었다.

막장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들 지내고있을가. 안전한 곳에 피신했을가? 비서동무는 왜 아직도 오지 않을가? 우리 강혁이의 병이 그렇게까지 위급한가?

《지배인동지, 이젠 좀 눈을 붙이십시오.》

겹쳐든 피곤으로 하여 간신히 몸을 일으키는데 호범의 팔을 잡으며 하는 공무반장의 목소리가 웅성이는 소음속에 울려왔다.

(이 사람은 왜 나에게 성가시게 구는걸까? 내 몸이 자꾸만 땅속으로 잦아드는것만 같이 느껴지는 건 무엇때문일가... 아니, 내가 이러면 안돼. 일어나야 해. 내가 쓰러지면 막장에 있는 우리 동지들은...)

공무반장의 팔을 휘뿌리며 일어서던 호범은 몸을 휘청거렸다.

막장을 흔드는 진동과 웅글은 소음에 호범은 어렴풋이 정신을 차렸다.

간신히 눈을 떴다.

희미한 전등빛에 비죽비죽 드러난 암석층이 보였다.

버력을 담은 마대를 탄차에 옮겨신느라 힘을 쓰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려왔다.

그제서야 호범은 자기가 압축기장에서 깜박 졸았음을 의식했다.

동지들은 지금 긴장한 구조전투를 벌리고있는데 지배인인 난 쉼틈 좋게 잠을 자고있다니 이게 웬일인가.

스스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깨어났군요.》

당비서의 등실한 얼굴이 먼저 눈이 비껴들었다.

《비서동무가 있으면서 내가 이 지경이 되도록 내쳐두었습니까?》

조종욱의 손을 잡으며 성을 냈다.

《히, 사흘동안에 겨우 30분간 눈을 붙이고도...》

《30분이 어딴니까. 그 시간이 막장에 갇힌 우리 탄부들에겐...》

《됐습니다. 그만합시다. 입술에 조갈이 든걸 좀 보십시오. 탄부들과 지원나온 돌격대동무들을 믿어 야지요. 그들은 지금 자기의 혈육들을 구원하는 심정으로 전투를 벌리고있지 않습니까.》

당비서의 말에 호범은 고개를 끄덕였다.

강장을 불러 자기가 잠든 사이의 전투정형을 물었다.

최운은 막장이 깊어갈수록 속도는 점점 더 느려진다고 걱정했다.

《무슨 방도가 있어야지 이 속도로 나가간...》

그러나 방도는 없었다.

여기는 그 어떤 기계설비를 들이밀수도 없는 곳이었다.

오직 동지들에 대한 불타는 사랑을 간직한 사람들만이 나설수 있는 신념과 의지의 대결장이었다.

《참, 갔던 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운차게 돌아가는 압축기의 동음을 들으며 호범이 물었다.

《수술은 성과적으로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서동무!》

호범은 당비서의 손을 꼭 잡아쥐며 말했다.

《인사는 내가 아니라 우리 탄부들과 가족들에게 먼저 해야 할겁니다.》

《?...》

《수련이랑 강혁이 소식을 받고 어지간히 속을 썩인 모양입니다. 그 소식이 한입두입 건너 오성렬 동무의 아주머니와 경철동무 안해의 귀에까지 들어 갔더군요. 이 소식을 들은 오동무 아주머닌 도당부 부장동지에게 지배인동지를 아들이 입원해있는 병원으로 보내자는 제기까지 하게 됐구요.》

아, 자기들앞에 닥쳐온 불행은 묵묵히 묵새기며

남을 위해 마음쓰는 고마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 나의 온몸을 깡그리 바치지 않는다면 내가 무슨 일꾼이고 지배인이라고 말할 수 있으랴!

후더워지는 마음을 안고 막장으로 걸음을 옮겼다. ...

《도당책임비서동지가 오셨대!》

그 소리에 호범은 언뜻 손목시계에 눈길을 주며 묻는듯 한 눈길로 곁에 있는 도당일군을 쳐다보았다.

밤 12시 50분이었다.

《나가기요.》

도당일군이 나직이 말했다.

《동무들이 마음고생이랑 많다면서... 내 다 들었소. 앉아서 보고만 받고있자니 속이 타서 견딜수가 있더라구. 그래서 이렇게 왔소.》

도당책임비서는 가제로 손가락을 동여맨 호범의 손을 무릅없이 잡으며 말했다.

《힘들지?... 솔직하지 못하구만. 하지만 오만한 난관에 주저앉으면 탄부가 아니지. 자, 인사들을 나누오. 탄광설계연구소 기사장동무요. 그리고 이 동무들은 복창지구에서 온 기술일군들이니 내가 구태여 소개하지 않아도 되겠지. 지원물자도 지원물자지만 기본은 동무네를 도와줄 기술일군들이 필요할것 같아서 데리고왔소. 우리 무릎을 마주하고 앉아 토론을 해보지요. 지배인동무 생각엔 막장에 갇힌 동무들이 어떤 상태에 있을것 같소?》

도당책임비서는 그것이 제일 마음에 걸린듯 물었다.

《도당책임비서동지! 우린 그 동무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호범은 몇차례에 걸쳐 진행한 협의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대답했다.

《그러니 그들은 살아있다고 믿는다 그 말이겠소?》

호범은 공정도를 펼쳐놓고 설명을 계속했다.

《우리가 갱진설을 진행할 때 제일 무른 암석층은 바로 분기점가까이에 있는 여기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터진 물이 봉락을 조성시켰다고 보고있습니다. 오랜 탄부들의 말에 의하면 이런 경우 막장에서 쏟아지는 집이 안쪽보다 밖으로 쏠리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계속하오.》

도당책임비서가 흥미를 가졌다.

《현재 막장에는 막장경험이 풍부한 탄부들이 있

습니다. 막장이 봉락되자 이들은 채탄장에 있던 동무들을 시급히 굴진막장으로 이동시켰을것이라는것이 우리 동무들의 한결같은 의견입니다.》

《웁소. 바로 그거요. 동무들에겐 지금 그들은 살아있으며 이 시각도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오.》

《명심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동무들이 진행하고있는 구조전투에 대해서 들어봅시다.》

도당책임비서의 재촉에 호범은 연필대를 쥐고 공정도의 한곳을 짚었다.

《현재 우리는 이 계선까지 복구굴진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50m정도만 전진하면 채탄막장과 굴진막장이 갈라지는 분기점에 닿게 됩니다. 탐사자료에 근거하여 우리가 계산한데 의하면 범사갱에서 터진 물은 여기 이 지점에서 봉락을 일으킬수 있습니다.》

《그렇다... 탄광설계연구소 기사장동무, 동무 보기엔 어떻소?》

도당책임비서가 공정도에 눈길을 박고있는 기사장에게 물었다.

《도당책임비서동지의 과업을 받고 우린 채령탄광이 위치하고있는 인포지구의 지질본포도를 구체적으로 연구하였습니다. 결과 이번 침수는 여기에 집수된 물의 영향에 의한것이며 따라서 이 구간만 개척하면 다른 일이 없을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러니 동무들도 이 동무들과 같은 생각이라는거겠소?》

《그렇습니다.》

《고맙소, 동무들.》

도당책임비서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호범을 비롯한 구조전투지휘부 성원들이 따라일어섰다.

《참, 지배인동무! 내가 동무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줄것은 아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놓소. 기술부원장선생의 말이 지금 환자는 의식을 회복했다고 하오.》

《고맙습니다.》

호범은 자기 아들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밤을 지새고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났다.

《자, 그럼 동무들은 당에서 지금 막장에 갇힌 8명의 탄부들을 구원했다는 보고를 기다리고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전투를 빨리 결속해야겠소.》

《알겠습니다.》

도당책임비서가 압축기장을 나서려고 할 때 책임

기사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다.

《도당책임비서동지! 막장에서… 막장에서 지금 착암기소리가 울리고있습니다.》

최운이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뭐요? 그들이… 그 동무들이 지금 착암을 하고 있단 말이지?》

《예, 압축공기가 들어오자 그들은 다시 착암을…》

최운이 어깨를 떨었다.

《가보지요.》

도당책임비서는 다시 막장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 동무들이 살아있단 말이지. 살아서 착암을 다시 한단 말이지. 이걸 기적이에요. 아무렴, 우리 원수님께서 그처럼 아끼시는 탄부들이 그렇듯 쉽게 목숨을 버릴수 없지. 보시오, 동무들! 당 제7차 대회장으로 향한 우리 탄부들의 심장은 이렇게 고동치고있소.》

×

《부부장동지! 어데 있습니까? 드디어… 드디어 막장이 열렸습니다.》

안전등빛이 앞으로 쭉- 뻗어나가자 호범은 지금껏 자기들과 운명을 함께 해온 도당일군을 목매여 불렀다.

《지배인동무, 나도 지금 보고있소.》

얼굴이며 온몸이 온통 탄가루로 얼룩져 누가 누군지 알아보기 어려웠으나 호범은 곁에서 웨치는 사람이 도당일군의 목소리임을 가려들었다.

《동무들!》

목소리마저 떨렸다.

뒤이어 터져오르는 탄부들의 합창…

《동무들! 어디 있소?》

간고한 구조전투의 낮과 밤을 오직 이 순간을 그려보며 이겨낸 사람들이 입에 손을 모아붙이고 소리쳤다.

굴진막장에서 물을 걸어차며 허둥거리는 사람들의 형체가 보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한데 엉키어 이쪽으로 걸어오는 그들을 향해 탄부들이 뛰어갔다.

《부부장동지, 저기… 저기 우리 동무들이…》

서로 부둥켜안고 얼굴을 비비는 그들에게로 달려가던 호범이 버럭에 발이 걸쳐어 그 자리에 어꾸러졌다.

《지배인동지!…》

주종명이 무릎을 치는 물을 차며 달려와 호범을 부둥켜안았다.

잇달아 달려온 안광혁이며 김경철이 옷자락이 젖어든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모두들 살아있었구만… 응, 살아있었어…》

호범은 끊어오르는 걱정예 목이 메여 그들을 와락 그러안았다.

《이렇게 살아있는걸 우린…》

거칠해진 불편에 수복이 돌아난 수염들이 호범의 얼굴을 따끔따끔 찔렀다.

그래도 좋았다.

얼굴을 맞비비는 그의 두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 내리며 입새로 흘러들었다.

목안이 째째해났다.

《비서동무, 우리 탄부들이, 이들 한사람한사람의 운명을 두고 잠 못 들던 우리 탄부들이 지금 동지들과 한덩어리가 되어 울고있습니다. 간고한 격전의 6일간을 오직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불굴의 정신으로 싸워이긴 8명 탄부들의 소식을 경애하는 원수님께 보고올려주십시오.》

터져오르는 오열을 삼키며 가족들과 뜻깊은 상봉을 하고있는 그들을 눈물속에 바라보며 호범은 마음속으로 뇌였다.

막장은 눈물의 바다, 걱정의 파도로 설레이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원수님 만세!》

얼굴이 온통 눈물범벅이 되어 엉켜돌던 사람들속에서 누군가가 심장에서 뿜어져나오고있는 목소리를 터쳤다.

《만세!… 만세!…》

호범은 그들의 목소리에 자기의 격앙된 심정을 합쳤다.

아, 수천길막장에서 석탄을 캐는 탄부들로부터 평범한 병사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 수천만 아들딸들의 운명과 미래를 맡아안고 죽음까지도 막아주는 위대한 어머니께 드리는 감사의 웨침…

저것이 바로 삶의 가장 위대한 태양을 우러러 터치는 운명의 메아리가 아니겠는가.

호범은 화산의 거대한 폭발처럼 분출하는 메아리속에 자신을 맡긴채 그들과 한덩어리가 되어 갱구를 나섰다.

따사로운 빛발이 런던히 뻗어간 산발을 덮으며 태양이 솟아오르고있었다.

그 눈부신 광채에 탄광마을 집집의 창문들이며 지붕들이 붉게 물들었다.